

■ 센터 소장 인사말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위하여 연세의료원이 준비합니다

70년간 너무도 강력하게 지속돼 오던 한반도 분단 체계에 거대한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올 해 초만 해도 핵전쟁의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되었으나, 잇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직 그 최종 결과는 알 수 없고, 여전히 안개 속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할지라도, 최근의 상황 변화들은 한반도와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 매우 긍정적인 것들이기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런 남북관계의 변화 및 북한의 정상국가로서의 국제사회 진입은 향후 남북한 사이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중요한 부분이 보건의료 영역의 교류와 협력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인접한 국가로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건의료 문제는 바로 다른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결핵, 간염, 말라리아, 기생충 등의 문제는 바로 남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한에서 문제가 되는 메르스 같은 질병은, 과거와는 다르게, 바로 북한의 보건의료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과 북한은 앞으로 "한반도 건강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를 위한 적극적이고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상호 협력은, 이질화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의 상호신뢰 형성,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통일"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연세의료원의 사명은 매우 큽니다. 민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활동하여 왔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현대적인 보건의료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고, 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며, 응급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활동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 그리고 병원의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통일보건의료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주시고 계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화 되어 가는 의료원 내의 인적 자원 개발이 향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매달 마지막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있는 원내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2학기 9월부터 있을 원내세미나에도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대, 간호대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통일관련 선택과목 개설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해 하반기에 통일보건의료센터 주관으로, DMZ 및 판문점 방문 프로그램을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홍보가 나갈 때, 이것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준비된 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연세의료원은 늘 민족에 대한 사명의식과 철저한 사전 준비에 의해 지금까지의 개척적인 역사를 열어 왔습니다. 2018년, 이제 그 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연세의료원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고, 또 기도하여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통일보건의료센터 소장 전우택 올림

신임운영위원 - 나군호 비뇨의학교실 교수 / 미래전략부실장

[편집자 주] 남북정상회담과 수 차례의 실무 접촉에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며 남북 관계는 훈풍을 맞고 있다. 이에 문화, 교육, 경제, 등 각 사회 각 분야에서는 북한과 교류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국내 의료계의 선두주자로서 그리고 창립 정신 실천의 일환으로서 연세의료원 역시 2014년부터 통일보건의료센터 직제를 신설하고 이러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의 남북관계 훈풍을 맞아 연세의료원의 발전과 미래사업을 기획하는 미래전략실의 부실장으로 있는 나군호 교수를 운영위원으로 맞이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보건의료센터 운영위원 위촉에 화답한 나군호 교수를 만났다.

1. 어떻게 북한, 통일보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처음으로 북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의무실을 운영하는 안에 대해 검토 요청을 받아 김원호 교수님과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과 검토를 하면서 북한의 의료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특히 수도인 평양을 우선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세브란스병원 초기 창립 당시 선교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의사를 양성을 했고 이때 북한 지역에도 평양 기독교병원, 함흥 재생병원, 해주 구세병원과 같은 병원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지역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선배님들의 노고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활동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최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와 교류하며 평양 조용기 심장병원의 재설립에 대한 요청을 받으며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임운영위원 - 나군호 비뇨의학교실 교수 / 미래전략부실장

2. 통일보건료센터에서는 어떤 활동을 기대하시는지요?

5200만 대한민국 인구의 10%정도의 건강을 세브란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어 북녘에 2500만의 우리 동포가 더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어떤 형태로든 남북간 교류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아래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쪽 체제가 유지되는 전제 아래 교류가 시작된다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교육, 의료 부문 등일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의료원이 바로 북한으로 진입할 수 없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동문들, 선배님들과 의료원이 함께 교두보를 마련해 봤으면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의료원 직원들의 휴가를 활용한 봉사활동, 정년 후에도 재능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하는 북한 지역에서의 활동 등을 추진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에 더 해 앞으로 통일, 북한과 관련하여 관심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요?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제 시대 및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의 기독교 기관들과 그 활동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서가 국내는 물론 미국 국무성 자료 보관서 등에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과거 활동에 대한 추적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제 31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최근 북한 보건의료의 변화와 지원 방향

-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후 6시
- 장소 : 의과대학 본관 1층 의대회의실
- 요약 : 김정은 집권 이후의 북한 보건의료 상황 변화와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검토



연자 소개 이기범 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부 교수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어린이어깨동무 소개
 북한 어린이들이 남한 어린이들과 문화적,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하여 통일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영양, 의료, 교육지원 및 평화교육활동을 수행함



강연 요약

어린이어깨동무에서 북한어린이의 보건의료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 소개

어깨동무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4개의 병원을 현대화하고 의약품, 의료소모품을 지급하여 보건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콩우유 공장을 설립하여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증진에 기여했다.

특히 평양 어깨동무어린이병원 건립 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래환자 규모, 환자들의 주요 증상, 어떤 처치를 하는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받고 이에 따라 협의하여 약품, 소모품, 검사시약 등을 보내 의료흐름을 평양에서 처음 정상화하고 북측 관계자와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최근 북한보건의료 추진 현황 및 김정은 시대 보건의료정책 통해 본 향후 협력 방향성

최근 북한은 아동병원, 치과병원, 안과병원 등 신규 보건의료시설을 확충해왔고 제약공장, 의료소모품 공장 등의 현대화, 과학화, 규격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으로는 원격의료, 보건지표의 세계적 수준 달성, 최신 의학과과학기술 수용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향후 협력의 방향은 이러한 분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어깨동무는 연변대학교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북측 소아과 의료진 해외연수, 도 단위 병원 현대화 및 인력역량 강화 등의 사업분야를 협의 중에 있다.



제 32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Global Health 동향을 고려한 남북 보건 의료 교류협력 준비

-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일시 : 2018년 5월 29일(화) 오후 6시

□ 장소 :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

□ 요약 : 국제사회의 보건 의료 원조 동향을 참고한 북한과의 보건 의료 교류 협력 준비 및 보건 의료 측면의 남북 동질성 회복, 인적 네트워크 구축 준비



연자 소개 박상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교수

전) 하버드 보건대학원 국제보건 및 보건정책 교환 교수

전) 대한민국국회 대북정책 거버넌스 자문위원회 보건 의료 자문위원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정책회의실 통일의학 담당교수



강연 요약

북한 보건 의료, 재정부족으로 지불보상 능력 흔들리고 비공식 의료 시장 활성화, 비공식 환자 부담금 증가, 의료 접근성의 빈부격차 커져

고난의 행군 이후 GDP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보건 의료 재원이 심각하게 축소됐다. 이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불보상능력이 현저히 낮아졌고 정부의 무상 의료서비스 질 또한 현저히 낮아졌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찾는 환자와 부족한 월급을 보충하고자 하는 의료진 사이에서 뇌물이 오가거나 개인 집에서 진료가 행해지기도 하며 비공식 의료 시장에서 자의적으로 약을 구매하여 복용하기도 한다.

대북 보건 의료 원조, 다자기구 채널링 활용 및 원조 동향 고려하여 창의적인 남북 교류 협력 전략 펼쳐야... ..

북한의 보건 의료 부문은 국제 사회의 지원에 많은 영향을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각 나라에 대한 보건 의료 부문 원조 액을 통계내면 북한은 질병 부담의 크기에 비해 원조 총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각 다자 기구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국가들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향후 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관계 변화에 따라 월드뱅크,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등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 보건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가 가진 대북 지원 관련 재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남북 교류 협력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투입 효과를 고려하여 경제성을 평가하고, 이에 근거한 효율적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건 의료 및 영양 영역에서 "경제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융합 모델을 기획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 상호 강점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R&D 사업을 확대하고 질병 관, 건강 행태에 대한 심층 연구 및 상호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대해야 한다.

제 33차 통일보건의료 세미나

북한 보건의료 개발에 대한 창의적 접근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민자 유치 방안을 중심으로

- 김희택 해외인프라개발협회장

□ 일시 : 2018년 6월 26일(화) 오후 6시

□ 장소 : 의과대학 본관 1층 의대회의실

□ 요약 : 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민관협력사업(PPP)구조 소개 및 선결과제, 리스크 완화 방안 제시



연자 소개 김희택 해외인프라개발협회장

디케이컨설턴츠 대표이사

국토부 해외인프라개발 투자자문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전문 분야

Project Structuring and Funding, 민자 인프라사업 개발기술,

Risk Management, Risk Management, 민자사업 각종 계약의 구조 및 주요 사안



강연 요약

PPP는 공공성 강조된 민간투자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인 BTO(Build Transfer Operate)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반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PPP모델은 해당 국의 상황에 따라 민간부문의 리스크규모를 디자인하여 모델링할 수 있다.

북한의 보건의료 개발에 PPP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선결과제 및 투자유치 방안 제안

PPP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제도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회수 및 금융상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환거래가 가능해야 한다.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으로는 계약위반, 몰수, 전쟁/폭동, 태환 위험으로부터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Political Risk Insurance를 민간투자자 및 금융권에 제공하여 북한보증기금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펀드구성을 제안한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보건의료인을 위한 진료실 10대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6월 15일 통일보건의료학회(이사장, 전우택)와 남북하나재단(이사장, 고경빈)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주제로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보건의료인을 위한 진료실 10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북한이탈주민과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큰 문제의식들을 정리한 것”이라며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뿐 아니라, 북한과 실질적으로 보건의료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질 때 훌륭한 가이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북한과 남한의 질병관, 의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인식, 의료체계 등이 상이하여 질병예방이나 진료 과정에서 의료인과 탈북민 상호 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제작 배경을 두고 있다. 진료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과 이들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 각각에게 질병예방과 진료, 건강관리를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10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10대 가이드라인은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

- 1.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증상이 없다고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 2. 올바른 건강습관을 유지하십시오.**
단백질, 채소, 과일을 포함한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고 이틀에 한번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합시다. 과도한 술과 담배는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 3. 몸이 아픈 것은 삶의 여건이나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과 환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진료실에서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여 주세요.
- 4. 마음이 아프면 몸에 병이 없어도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잘 치료받으면 신체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 5. 정확한 정보가 빠르고 확실한 치료를 이끌어 냅니다.**
의료진에게 병과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 6. 신뢰할 수 있는 같은 의사에게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 치료결과를 이끕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것은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7. 증상이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치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효과는 꾸준히 치료를 받은 후에 나타납니다. 조급해 하지 말고 의료진의 치료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8. 약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을 먹고 바로 효과가 없다고 마음대로 약 용량을 늘리거나 약을 바꾸면 병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 9. 보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약은 의사가 지시한 처방 내용 그대로만 먹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약을 먹거나, 약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 10. 의료 이용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맞는 의료기관 이용 및 지원혜택에 대해 하나센터와 종합복지관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진료하는
보건의료인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 }

- 1. 북한이탈주민은 증상의 정도로 질환의 경중을 판단하곤 합니다.**
증상이 없으면 병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속 관리의 중요성과 합병증에 대해서 강조하여 주세요.
- 2. 신체의 증상이 심리적 어려움과 관련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내면의 아픔으로 인해 신체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 3.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신체 증상 뒤에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내 갈등, 사회문화적 고립감 등 다양한 환경적, 심리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증상 호소 표현을 잘 이해해 주세요.**
남북한의 용어나 억양 차이로 인해 다소 낮설거나 과장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 5. 꼼꼼한 문진과 신체검사(P/E)를 하여 주세요.**
친절하고 천천히 문진을 하고 환자의 말에 경청하여 주십시오.
- 6. 의사-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치료과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좋은 치료 결과를 위하여 환자와의 좋은 신뢰관계(rapport) 형성을 배려해 주세요.
- 7.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주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지나친 음주나 흡연 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8. 약의 효능과 효과발현 시점 등을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특히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약물인 경우 더 자세한 사전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 9. 약물 오남용 및 과용의 위험성을 설명해 주세요.**
약의 효과와 용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약물의 잘못된 사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0.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 자격과 의료비지원 혜택에 대해 환자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권유해 주세요.

통일보건의료센터 공지사항

○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관 「옴니버스특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

| | | | |
|------------------|--|-------------------|-----------------------|
| 「옴니버스특강 지원」사업 소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 통일부 통일교육원 · 목적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기회 확대 및 대학사회 내 통일 연구 확산 · 공모대상 : 대학 | | |
| 특강 기획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과대학 선택교과목 <통일과 의료>의와 공동 프로그램으로 진행 · 특강 3회 및 현장학습 1회 진행 예정 · 특강은 <통일과 의료> 수강생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 교수 및 직원에게 오픈강좌로 진행 예정 | | |
| 특강 안내 | 일시 | 주제 | 강사명 |
| | 9. 5(수) 14:30~17:20 | 영화로 보는 북한, 북한 사람들 | 전영선 건국대학 통일인문학연구단장 |
| | 9.12(수) 14:30~17:20 | 분단의 역사와 통일 | 김성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 |
| | 10.10(수) 14:30~17:20 | 북한 내부 메커니즘의 이해 |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
| | ※ 강의 장소 확정 후 특강 프로그램 별도 홍보 예정, 관심 있는 연세의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 | | |
| 현장학습 프로그램 | <p>[판문점 및 DMZ안보관광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8년 9월~10월 중 토요일 (예정) · 내용 : 판문점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도라산 역, 제 3땅굴, 도라전망대 등 방문 · 대상 : 연세대학교의료원 교직원 및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 보건대학원 재학생 ※ <통일과 의료> 수강생 및 관심 있는 대상자 참여 가능 (대상자 그룹 별 인원 제한 있음) ※ <통일과 의료> 수강생 외 대상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 예정 | | |

기타·광고

통일보건의료학회 관련 소식

○《한반도 건강공동체 준비》서적 출간 예정

통일보건의료학회는 각 대학의 전문 식견과 지식을 겸비한 교수진 및 연구원들과 함께 통일보건의료의 준비 및 제안을 위한 옴니버스 형식의 서적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책 구성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한 제안을 주요 질환 별, 전문 영역별, 주요 이슈 별로 담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8월 말 출간될 예정이다.

